

불교용어 감성과 워트로 설명

“A씨를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얼굴일 것이다. 그럼, A씨의 사진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 그의 이름을 떠올릴 것이다. 얼굴과 이름, 사물과 이름은 불가분의 관계다. 아무리 귀한 것도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한낱 물건에 불과한 것과 같다. 이름이 있음으로 형상의 존재가치가 규정되고 전해지는 것이다. B씨 앞에서 아무리 A씨를 불러도 B씨는 B씨일 뿐, 대신 대답하지 않는다.

불교를 공부하는데 있어 용어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물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것과 같다. 기본교리는 물론 일상적인 용어들도 그 쓰임새마다 뜻이 정확하게 분별되어야 한다. 정치인이 말하는 ‘화

두’와 방장스님이 말하는 ‘화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자들은 ‘화두’란 단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 단어의 쓰임새에는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용어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사람은 공부의 폭도 넓다고 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치다〉는 불교 집안에서 법 먹듯이 불마시듯이 자주 쓰는 용어들을 아주 새로운 감성과 워트로 정의하고 있다. ‘화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아가씨들의 다리 걱정이다. 아줌마들의 뱃살 걱정이다. 남자들의 정력 걱정이고, 노인들의 애인 걱정이다. 그리고 산사 스님들의 중생제도 걱정이다.”

저자 윤창화(민족사 사장)씨는 “추상적이고 난해한 언어들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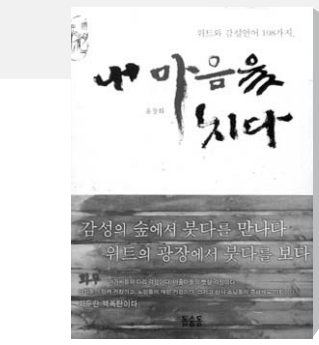
렇게 하면 마음에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생각이 날 때마다 노트해 두었던 것을 ‘마음먹고’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있던 저자가 책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이해가 철학과 사상은 물론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책이 내리는 ‘애육’에 대한 정의를 들어 보자.

“본다. 쥐 잡는 끈적끈적한 본드다. 일단 보면 여간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자의적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죽음의 신이 당도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정이다. 눈물과 슬픔을 대동한 채 깊은 감정에 호소하는 깊은 정이다. 붉은 눈물이 떨어지는 강렬한 애착이다. 심하면 병이 된다. 상사병이 된다.”

이문태 기자 ytlm@buddhapia.com



내 마음을 치다
윤창화 지음
동승동 펴냄 | 9500원

성철 스님 일대기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일화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지음
열림원 펴냄 | 각 권 1만원

〈산은 산 물은 물〉(초판 1998년)은 전남 화순 쌍봉사 뒤편에 토굴을 지어놓고 귀농 생활을 하고 있는 소설가 정찬주(54)씨가 소설로 쓴 성철 스님의 일대기다.

주인공인 검사 정익진이 자신의 소모적인 삶에 대한 회의에서 성철 스님의 발자취를 좇는다는 구조에, 스님의 생애가 곳곳에 조망돼 있다. 8년의 장좌불와(長坐不臥)와 10년의 철책수행, 손수 기워 입은 단 두 벌의 누더기 장삼으로 평생을 지낸 일 등 수행자로서 철저했던 스님의 삶이 녹아 있다.

특히 이 책은 정 검사가 성철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는 행각적 요소와 실제적 행장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대기적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된 장편소설이다.

진정한 나를 찾고자 애쓰고 있는 정익진 검사는 현대의 우리 모습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들, 출가 이전과 주변 인물들, 스승, 제자들의 이야기를 2권에 압축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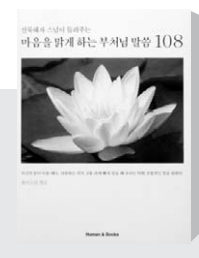
이 책의 제목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성철 스님이 1981년 1월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된 후 내린 법어다. 좀더 자세히 법어를 소개하면 “보이는 만물은 관음(觀音)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妙音)이라/ 보고 듣는 것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이다.

관부독재시절 당시, 세상에 대한 스님의 사자후를 목마라하던 사람들에게 이 법어는 그야말로 선문답 같은 감로법문이자 시대를 뛰어넘는 국민들의 영원한 화두가 되었다.

김주일 기자

법회 교재 · 불교에세이

꼭 알아야 할 부처님 법문 108가지



선묵해자 스님이 들려주는 마음을 맑게 하는 부처님 말씀 108
선묵해자 스님 엮음
휴먼앤 북스 펴냄 | 1만5000원

인간의 비극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그 욕망은 우리들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도전사 선묵해자 스님은 요즘 무척 바쁘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마음으로 찾는 108 산사기행’ 때문이다. 그동안 4만여 불자들과 함께 1년여 동안 13곳의 사찰을 찾았다. 다닌 거리만 해도 무려 3만km에 이른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불자들을 위해 ‘부처님 말씀 108 일일법회’를 시작하기 위해 <... 부처님 말씀 108>이라는 불교에세이를 펴냈다. 일종의 법회 교재다.

부처님 말씀은 무려 팔만사천경에 이른다. 그 속에는 인간의 고뇌, 외로움, 분노, 행복 등 진리의 말씀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것들을 다 읽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이 책은 그 많은 경전 중,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처님의 법문 108가지를 뽑은 책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부처님은 많은 설법을 통해 ‘깨침’으로 인도하고 있다.

문장 문장마다 녹아 있는 주옥같은 교훈들은 우리들에게 진정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 특히 사슴, 새, 코끼리, 토끼 등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말씀들은 읽는 이에게 많은 재미와 감동을 던진다.

어떨 때는 웃음이 나온다 못해 무릎을 탁 치게 할 만큼 지혜의 삶을 일러 주고 있다. 그간 설법한 내용과 포교 체험을 결집한 선묵해자 스님의 해설이 경전의 글맛을 돋워 주는 애피타이저 역할을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상생과 화해에 관한 소설

‘종연생 종연멸(從緣生 從緣滅)’



시절인연
해범 스님 지음
밀알 펴냄 | 9000원

‘시절인연’이란 필요충분조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뜻한다. 흙 속에 풀뿌리가 있지만 보다 필요한 조건은 흙 밖의 환경, 즉 인연이 갖추어져야 새싹이 돋고 열매가 맺어진다. ‘종연생 종연멸(從緣生 從緣滅)’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다 갖추어진 후에야 때가 온다.

저자는 교통사고로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상생과 화해에 관한 소설을 이루어냈으니 그 산물이 이번 책인 <시절인연>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이문은 중등교사 임용을 한 달 앞둔 10년 전,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에 의해 가족과 애인 희영을 잃는 사고를 당하고 입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문은 10년이 넘었음에도 속

세에서의 애증을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고뇌한다. 기억을 지우려야 지울 수 없고 때어버릴 수 없는 악연(惡緣)이다. 이러한 이문 앞에 단 한번 눈길에 터져버린 내 영혼이라며 나타난, 담당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색이 스쳐 지나가는 이서연. 어머니와 희영을 떠올리게 하는 이서연을 통해 이문은 그동안의 고뇌와 산란한 마음,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 시절인연이 닿았음을 깨닫는다.

두 다리가 절단되어 복지법인의 시설에서 가축처럼 살고 있는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트럭운전자 장홍석, 이문과 장홍석은 서로를 끌어안고 용서하며 상생과 화해의 길을 모색한다. 이제까지의 광태(狂態)를 끝내고 원(恨)과 한(恨)을 풀기 위해, 고인들의 넋과 혼을 위로하기 위해 천도재를 지내줌으로써 이 소설은 마무리된다.

저자 해범 스님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화두를 품고, 크나 큰 의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도 한동안의 세월을 보내고 나면 필연적으로 그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때, 즉 시절인연이 오게 되면 성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산들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4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선	이름미디어
5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6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7	무비 스님이 가려뽑은 명구 100선	무비	불광출판부
8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기림집	청화	상상예찬
9	행복한 미소	성진	게임
10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불서출판 운주사 재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명불도선

염불하는 자, 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

스님은 자신의 수행법문 외에도 18여명의 역대 선사의 염불선 법문을 담아 수행자들의 발심을 돕고 있다. 불교신문
덕산 스님은 《염불선》을 통해 염불선에 대한 철저한 자기체현과 역대 고승들의 염불선 법문과 이론적 배경, 수행방법등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염불과 염불선은 무엇이 다를까?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덕산 스님의 《염불선》이다. 법보신문
염불과 참선의 정점을 결합한 염불선 수행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1문 1답 형식으로 구체적인 염불선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불교TV

출판 2주만에 재판 발행!!
불교 수행하는 이들 모두가 기다려왔던 염불선의 길잡이
덕산 스님의 철저한 염불선 수행이력과 방법이 담겨있다.

“부디 염불하는 날이 되십시오.
염불정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갈등과 어둠을 몰아내고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덕산(德山) 스님
염불선으로 공(空)을 체현, 청화 스님 이후 차세대 염불선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스님은
충북 청원 해운사를 중수해 염불선 전문수행도량으로 개교하고 있다.
신국판본형 / 정가 10,000원

클리어마인드
02)2198-5151

자 · 광 · 스 · 님 · 의 · 원 · 각 · 경 · 이 · 야 · 기

종은만남 멋진이별

글 자광스님 / 정가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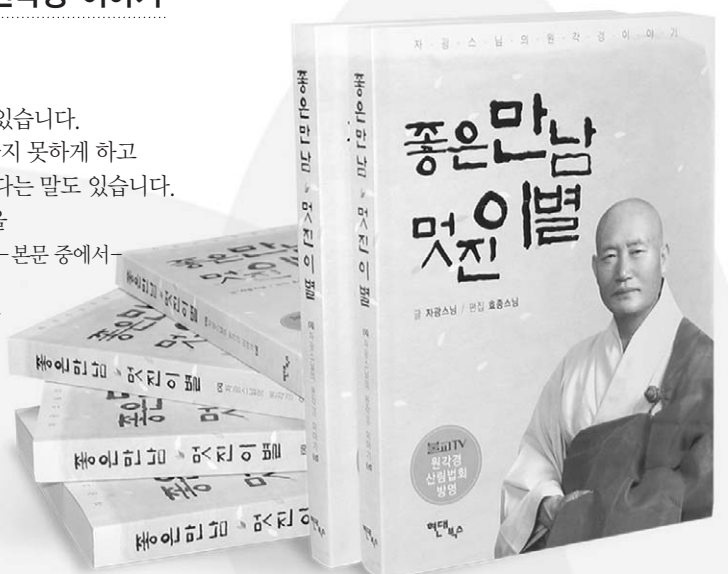
불교TV에 매주 12편에 걸쳐 방송된 자광스님의 원각경 이야기

사랑할 줄 알아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환생하거나
또 십만억 국토를 지나 왕생하거나 상생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한 포기도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연(善緣)을 지어야 합니다. —본문 중에서—

직지사 주지를 역임할 당시, 스님의 뛰어난 학식과 법문은 많은 화제를 낳기도 했었다.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내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가르친다. 『불교신문』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삶이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광스님] · 前) 지리산 실상사 주지 · 前) 화양산 봉인사 주지 · 前) 운당산 김동사 주지
· 前) 직지사 주지 · 현재 김홍사 회주 · 현재 문경불교대학 학장
· 자광스님의 중도가(鐘道歌)-이름 없는 풀이 없듯 인연 없는 중생 없네 출판



현대 불교서적
Tel. (051)244-1251
Fax. (051)244-1241